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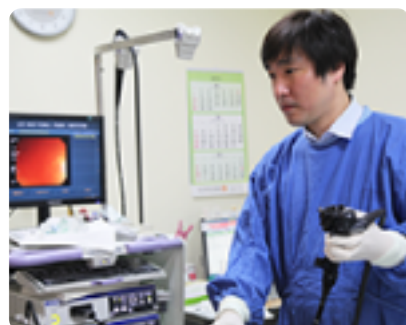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소화기내과 강현우 교수, '세계적 선도 전문가' 2015년판 등재

소화기내과 강현우 교수가 '세계적 선도 전문가(Leading Professionals of the World)' 2015년판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등재는 여러가지 소화기 질환과 관련된 생활습관, 식이, 비만 등의 위험 인자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과 논문 발표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강 교수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4, 2015)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소화기 분야 최고 저널 중 하나인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impact factor: 9.213)에 '내장지방과 과민성 장 증후군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교신저자로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 석학들의 주목을 받았다.



02 보직자 임용장 수여식

동국대학교병원은 보직자 11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10일 명성세미나실에서 열었다.

태석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보직자 한명 한명에게 악수를 하며 축하와 격려를 했고, "이번에 임용 받은 보직자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병원을 이끌어 가길 바라며 병원과 조직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03 진료협력센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집담회 열어

진료협력센터는 본원 응급의학과(과장 이승철) 의료진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집담회를 5월 27일 열었다. 집담회에서는 전원 의뢰된 환자증례분석을 통하여 응급의뢰 프로세스 등을 점검하고 병원 최전선에서 일하는 실무의료진간 어려움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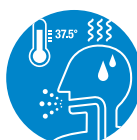
파주병원은 본원과 2006년 5월 협력병원을 체결했고, 최근 3년 동안 최다 의뢰가 이루어진 병원으로 이날 자리는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04 백유진 책임간호사, 모범상 수상

수술실 백유진 책임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고양시간호사회로부터 모범상을 수상하여 6월 교직원조회에서 상장을 받았다. 백유진 간호사는 평소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으로 직원 간 화합에 앞장서고 환자과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헌을 인정받아 고양시 간호사를 대표하여 수상했다.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해 진단한다.
-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는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한다.
-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